



증권 다이제스트

한국투자증권

뱅크스고객 전용 ELS 출시

한국투자증권은 18일 뱅크스(BanKIS) 고객을 위한 전용 ELS를 신규 출시했다. 뱅크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다. 오는 21일까지 4일간 판매되는 뱅크스 전용 ELS는 총 3종으로 지수형 ELS 2개 상품과 지수 및 종목 혼합형 1개 상품이다. 유로스탁스 뱅크스(Eurostoxx banks)지수와 셀트리온(종목) 등 기존 ELS와는 차별화된 기초자산을 편입하며, 상품에 따라 연7.5%~10.3%의 기대 수익률을 제시한다. 최소 가입한도는 100만원, 온라인 가입만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NH투자증권

글로벌논스톱 매매 서비스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미국, 중국, 일본, 홍콩)을 결제일과 상관없이 실시간 논스톱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글로벌 논스톱 매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국가간 통화 및 결제일자(주식매도 금액이 들어오는 일자)가 서로 달라 주식을 매도해도 결제일자까지 기다려야 다른 국가 주식의 매수가 가능했다. NH투자증권의 글로벌 논스톱 매매 시스템은 결제일을 맞출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매 가능하다. 한국주식 매도 후 중국주식 매수, 일본주식 매도 후 홍콩주식 매수 등 당일 5개국(한국, 미국, 중국, 홍콩, 일본)의 모든 주식 매매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장처럼 매매가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21일 팟캐스트 공개방송

키움증권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팟캐스트 공개방송을 오는 21일 오후 6시부터 키움파이낸스스퀘어 2층 교육장에서 진행 한다. 팟캐스트 '경제박사와 주식, 글로벌 전문가의 마켓이야기'는 흥준욱 박사, 강병욱 박사 등이 진행하는 경제, 재테크 이야기로 팟캐스트는 팟캐스트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콘텐츠다. 이번 팟캐스트 공개방송에서는 '배당주는 왜 봄에 더 강할까?'라는 주제로 흥준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치과의사 피트씨의 특별한 배당주 투자'의 저자인 피트 황 작가가 3월 국내시장 전략을 제시하고 배당주 투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손업지 기자

# 증권사도 잇따라 '전자투표제' 도입한다

17곳 중 주총일 확정된 11곳  
주총 자율분산프로그램 참여  
8곳선 전자투표제 도입 약속

주주총회 분산, 전자 투표 등 선진적인 주총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증권사도 동참하고 있다. 주총일을 확정지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주총 자율분산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대우는 전자투표시스템 무료 서비스를 통해 상장사의 원활한 주총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17개 증권사 중 주총일을 확정지은 11개사 모두 주총 자율분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총 자율분산프로그램은 주총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 장려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전체 상장사의 32% 가량만 참여했다는 점에서 증권업계의 참여는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참여 증권사 중 절반 이상인 8곳이 전자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특히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

〈주총 자율분산프로그램 참여 증권사〉

증권사	주총일	전자투표
유안타증권	2019-03-29	O
NH투자증권	2019-03-27	O(예정)
유진투자증권	2019-03-27	O
한양증권	2019-03-26	X
한화투자증권	2019-03-26	O
교보증권	2019-03-22	O
유화증권	2019-03-22	X
대신증권	2019-03-22	X
현대차증권	2019-03-15	O
메리츠증권	2019-03-15	O
미래에셋대우	2019-03-27	O(예정)

자료=각사

투자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메리츠증권 등은 주총 분산프로그램 참여와 전자투표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4년 연속 전자투표를 도입해오고 있지만 참여율은 1% 남짓으로 효용성은 미미하다"면서도 "증권업 특성상 전자투표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총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래에셋대우는 전자투표와 전

자의결권 위임 서비스인 '플랫폼V'를 오픈해 상장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다만,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그 증명자료로 '예탁원의 전자투표 이용 확인증'만을 인정해 왔다. 회사 측은 상장사들의 원활한 주총을 돕고, 선진적인 주총 문화를 위해 서비스 무료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처음으로 전자투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셋대우는 최대 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18.62%)과 우호지분 네이버(7.11%) 등의 지분율이 25%를 넘어 의결권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투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보다 잠재적 효용을 위한 결정"이라면서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 기회를 주고, 기업에게도 전자투표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사(17개사) 중 절반만이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는 것은 개선돼야 할 문제로 꼽힌다.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는 증권사 대부분은 대주주 지분이 높아 도입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주장이다. 또 전자투표 시스템 자체가 의결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 대주주의 지분이 30%가 넘기 때문에 도입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전자투표의 경우 의결권을 미리 행사한 후 의결권 행사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서 오히려 주주권 행사에 불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상법시행령상 전자투표를 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자투표가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 전자투표의 의결권 행사내역에 대해 주주총회 이전의 전자투표 기간은 물론이고 주주총회 당일 현장투표에서도 언제든지 의결권 행사내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신영증권, 48년 연속 흑자달성 전망

3분기 영업이익 8% 늘어난 792억원

3월 결산법인인 신영증권의 지난해 3분기(2018년 4월~2018년 12월)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 늘어난 792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신영증권은 1971년 이후 48년 연속 흑자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의 이번 실적 방어 비결은 개인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비중이 높지 않아 증권업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골고루 유지했다는 평가다.

신영증권 실적 공시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 늘어난 791억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당기 순이익은 3% 늘어난 606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금은 1조1578억원에서 1조1487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현금 등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를 포함한 자본총계는 8조7766억원에서 9조805억원으로 상승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권업황이 지난해 3분기에 이어 높은 시장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브로커리지, 매매 부문에서는 물론 전통 투자은행(IB) 수수료 등 시장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에서까지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영증권은 보수적인 경영 기

조를 유지해 2017년까지 4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훈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신영증권은) 보수적인 경영을 통해 1971년 이후 매기 흑자를 기록해 왔는데, 이는 대부분 증권사의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이다"며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어느 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이자수익과 기타영업수익, 증권평가 및 처분소득, 파생상품거래손익 등 다양한 결과와 연계 좋은 실적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대신증권

iF디자인 어워드서 '애뉴얼리포트' 본상

대신증권은 18일 'iF(International Forum) 디자인 어워드'에서 연차보고서인 '2018 대신증권 애뉴얼리포트'가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레드닷(ReDDot),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인정받는 시상식이다. 올해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총 6400개의 작품이 출품돼 경쟁했다. '2018 대신증권 애뉴얼리포트'는 대신증권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보여주는 컨셉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과거 서체 및 로고와 리뉴얼된 현재 로고를 오버랩하여 시간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담아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디자인 요소로 대신증권 CI를 모티브로 사용하였으며, 책 사이즈와 판형, 그래픽 등에 심볼의 비례를 적용하고, 대신증권의 컬러인 블루와 그린을 각각 적용하여 2개 국어로 제작했다.

대신증권은 2010년 CI 디자인 리뉴얼을 시작으로 브랜드 리더십을 강화했다. 2018년 10월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파이널리스트(Finalist)'를 수상한 가운데 'ID:B'까지 세계 최고 국제 공모전에서 총 6차례 수상한 바 있다.

김봉찬 대신증권 브랜드전략실장은 "대신증권의 비전과 가치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담은 2018년 애뉴얼리포트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 외국인, 지난달 주식 4조원 순매수

코스피 3.9조, 코스닥 1천억 규모  
금감원, 채권시장 3.7조 순유출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4조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권시장에선 석달 만에 순유출로 돌아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7340억원을 순매수해 작년 12월에 이어 매수세를 이어갔다. 순매수 규모는 코스피 3조9000억원, 코스닥 -10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이 각각 1조7000억원, 1조500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아시아와 중동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 규모로 순매도에 나섰다.

국가별로는 미국(1조5000억원)과 룩셈부르크(6000억원) 등이 순매수했으며, 싱가포르(-4000억원), 몰타(-1000억원) 등은 순매도에 나서기도 했다.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단위: 십억원, 결계기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보유잔고
			상반기	하반기	12월	1월	
주식	10,180	△6,678	△3,900	△2,778	116	3,734	567,181
채권	9,447	15,625	12,021	3,604	1,479	△3,739	110,186
합계	19,627	8,947	8,121	826	1,595	△5	677,367

자료=금융감독원

지난 1월 말 기준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567조2000억원이다. 미국이 243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고 ▲유럽 164조6000억원(29.0%) ▲아시아 67조4000억원(11.9%) ▲중동 19조8000억원(3.5%) 등의 순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석 달 만에 순유출로 전환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1조6350억원을 순매도에 총 3조7390억원이 순

유출됐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의 순유출 규모가 각각 2조2000억원, 1조3000억원으로 컸다. 중동별로는 국제(-2조3000억원), 통안채(-1조4000억원), 잔존기간별로는 1년 미만(-4조4000억원)에서 순유출됐다.

1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총 110조2000억원으로 전체 상장채권의 6.4%를 차지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